

# 1986년도

## 2/4분기 축산관측 결과

〈축협중앙회 축산관측협의회〉

### I. 산란계

#### 1. 사육동향과 전망

##### 가. 동향

산란계 마릿수가 84년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86년 3월에는 3,569만 마리(종계포함)가 되었다. 이것은 1년전 동기보다 17% (527만 마리)가 증가한 것이며, 3개월전보다 0.5% (17만

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6개월령 이상)의 마릿수는 2,692만 마리로서 1년전보다 18% (415만 마리)가 증가한 것이며, 3개월전보다 3% (74만 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84년도의 계란값 호조와 '86년도에 사료값이 인하되어 산란율이 비교적 저조한 닭도 사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천 M/T)

구 분	'85.5	8	11	'86.1	2	3
총 생산량	140.0	128.0	147.9	150.9	145.4	157.4
어린병아리용	4.2	3.7	4.0	2.4	2.6	4.4
산란용	94.4	87.1	92.6	102.1	101.3	109.4

표 2. 닭 사육호수 및 마릿수

(단위: 천호, 마릿수)

구 분	'86.3	'85.12	'85.3	대 비(%)	
	(1)	(2)	(3)	(1/2)	(1/3)
사육호수	265	303	301	87.5	88.1
총마릿수	51,166	51,081	45,934	100.2	111.4
월령별					
3개월미만	19,185	19,486	18,535	98.5	103.5
3~6개월	5,061	5,413	4,628	93.5	109.4
6개월이상	26,920	26,183	22,771	102.8	118.2
용도별					
중계	2,269	2,341	1,933	96.9	117.4
산란계	33,421	33,179	28,484	100.7	117.3
육계	14,639	14,365	14,658	101.9	99.9
일반계	837	1,196	859	68.0	97.4

##### 나. 전망

6월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월에는 3월에 비하여 8% 정도 감소한 3,300마리만, 9월과 12월에는 3월에 비하여 10% 정도 감소한 3,20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보는 것은 계란값 침체에 따라 봄철에 초생추 입식이 저조하였으며 노계 도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2. 가격동향과 전망

##### 가. 동향

작년 9월 이후 계란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월에는 봄철 행락기의 소비증가로 약간 회복세를 보였으나 근본적으로 계란생산량이 과잉된 상태이므로 큰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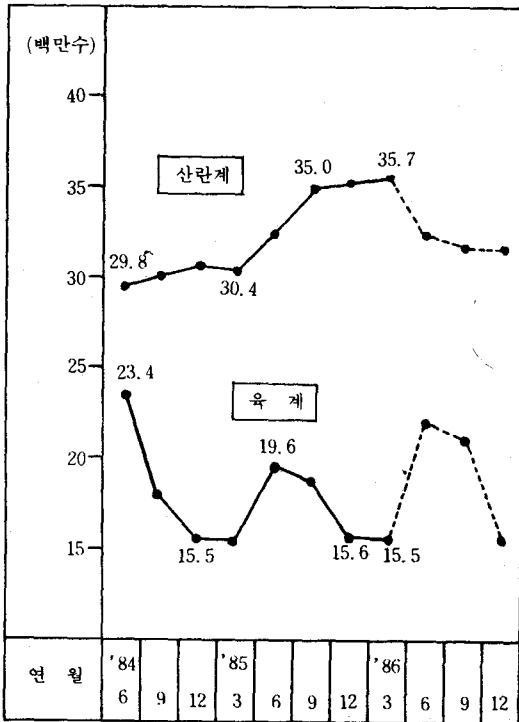
5월 중순에는 대란 10개당 426원으로 매우 침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계란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릿수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계란

값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전망

5월 가격보다 약세 상태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근거는 6개월 이상된 닭의 마리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산란용닭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작년보다도 과다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봄의 초생추의 입식 저조와 여름철 노계 도태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가을철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닭 마리수 변동



## II. 육계

### 1. 사육동향과 전망

#### 가. 동향

3월 현재 1,547만 마리(일반계포함)로서 1년

전보다 0.3%(4만 마리)가 감소하였으며 3개월 전보다는 0.5%(9만마리)가 감소하였다. 육계는 계절적으로 변동형태가 비슷한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정상적인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 나. 전망

6월에는 계절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200만 마리 정도로 증가하겠으나 9월에는 2,100만 마리, 12월에는 1,600만마리로 약간 감소세를 보이겠다. 이와같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가을철 이후의 수요 위축에 대비한 자율적인 마리수 조절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3. 육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천 M/T)

구분	'85.5	8	11	'86.1	2	3
총 생산량	60.8	57.7	46.4	46.4	47.8	54.2
전기사료	25.2	24.4	18.8	18.4	18.5	21.3
후기사료	35.6	33.3	27.6	28.0	29.3	32.9

## 2. 가격동향과 전망

### 가. 동향

작년 연말 이후 2월 초순까지는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그후 3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4월부터 약간씩 회복기미를 보이나 큰폭의 회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나. 전망

당분간은 약세가 되다가 7~8월에는 보합세를 보이겠으며 그후 다시 약세가 예상된다. 6월에는 계절적인 소비위축시기이며, 7~8월에는 산란노계의 도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육계는 2개월 사육이면 완전히 출하가능하므로 사육조절(출하조절)로서 육계값 안정이 쉽게 이루어질 듯 한데도 실제로는 가장 불안정한 가격형태를 보인다.

## III.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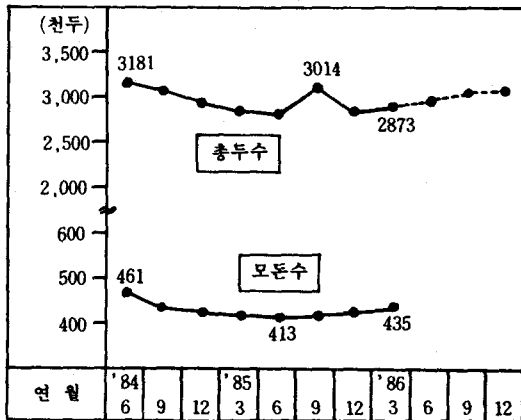
### 1. 사육동향과 전망

### 가. 동향

'86년 3월의 총마리수는 2,873천두로서 1년 전인 '85년 3월보다는 1.1%(32천두)가 증가하였으며 3개월전인 '86년 12월보다는 0.7%(20천두)가 증가하였다. 돼지마리수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돈두수는 작년 6월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3월 현재 435천두가 되었다. 이는 1년전보다 4.8%(2만두)가 증가되었으며 3개월전보다는 0.5%(2천두)가 증가된 것이다.

사육규모별 두수 현상을 보면 1년전에 비하여는 300두미만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300두이상 규모는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며, 최근에는 50두미만 규모에서 10%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돼지 두수 변동



월령별 두수동향을 보면 작년 12월에 비하여 2~4개월령 돼지는 감소하였으나(4~5월출하분) 2개월 미만 돼지가 증가하여 6~7월의 출하량이 증대될 것으로 본다.

### 나. 전망

현재의 증가 추세가 6월 이후에도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6월에는 3,000천두 수준, 9~12월에는 3,100천두 수준

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작년 5월 이후 돼지가격의 장시간 호황에 따른 사육의욕 증대와 암돼지 도축마리수 감소에 의한 모돈 확보 경향, 그리고 금년 3월 돼지 두수와 현재의 가격으로 6월 이후에 예상된 불황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가격동향과 전망

### 가. 동향

5월중순 현재 큰돼지는 두당(90kg)155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33%가 상승한 것이며, 지난 달보다도 12%나 크게 오른 값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돈값도 마리당 44천원으로서 너무 비싼 값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큰돼지값이 좋다고 지금 새끼를 무턱대고 입식시키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새끼돼지를 구입하여 사육하면 여름철 비수요기에 판매된다는 것은 모든 양돈가는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아물든 이렇게 가격이 좋음은 작년 하반기의 관측홍보에 모든 양돈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폭등현상까지 빚는 것은 지난 1~2월에 전염성위장염하리(TGE)에 의한 자돈폐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모돈두수와 연계하여 볼 때 모돈수가 적어서 가격의 오름이 아닌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양돈가는 현재의 모돈을 그대로 사육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모돈수에서 더 증식시키는 것은 가격하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 나. 전망

5월까지의 강세가 될 것이나 6월이후는 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약세를 보이는 것은 출하적령 돼지가 전분기대비17.5%가 감소한 반면 4~5월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월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것은 3월의 새끼돼지두수가 전분기보다 23.7%가 증

가 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름에 출하 될 돼지를 미리 조기에 출하한다면 현재의 폭등세도 진정시키고, 여름철의 하락세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IV. 한(육)우

##### 1. 사육동향과 전망

###### 가. 동향

'8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85년 6월에는 2,654천두로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나타냈으나 85년말에는 약간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85년말에는 2,553천두로서 1년전 동기보다는 10.1% (235천두)가 증가하였으나 6개월전인 '85년 6월보다는 3.8% (101천두)가 감소하였다. 2세이상의 성빈우 두수는 85년말현재 1,047천두로서 1년전 동기보다는 6.9% (77천두)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젖소의 총두수는 390천두로서 1년전보다 16.8% (56천두)가 증가하였으며 2세이상 착유우두수도 1년전보다 18.1% (35천두)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소 전체두수는 2,943천두로서 6개월전보다 3% (91천두)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나. 전망

금년 6월에는 2,600천두 수준으로 작년말보다 2%정도의 약한 증가가 예상되나 금년말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6월까지의 약간 증가하리라고 보는 것은 첫째, 2세이상의 가임암소두수가 100만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상반기에는 소의 번식생리상 송아지 생산이 많은 시기이며, 셋째, 사육의욕은 침체하는 경향이지만 부업 양축가의 기본적인 사육심리가 현재의 가격수준을 바닥세로 보면서 농가자산으로서의 사육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현재의 큰소값이 앞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렴한 송아지를 구입하면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소 사육규모를 확대시키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말에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작년12월이후 중암소의 지속적인 수매도 축과 이의 파급효과 발생 및 하반기에는 송아지 생산수가 감소하여 수요는 상반기보다 많은 시기로서 도축두수가 증가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 2. 가격동향과 전망

###### 가. 동향

소값을 작년 12월을 최저점으로 회복국면에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월 민속절까지는 오르다가 그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하락율보다는 크게 둔화된 2~3% (전월대비)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으며 5월 중순에 들어서는 약간 반등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중순 현재의 소값 동향을 보면 큰소(400kg 수소)는 두당 995천원으로 작년 12월보다는 5% 정도 회복되었으며, 암송아지는 두당 223천원이고 수송아지는 두당372천원으로 작년 12월보다 14%나 회복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나. 전망

5월중순의 완만한 회복세가 금년도에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세 예상 이유는 일반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 돼지고기 가격의 강세에 따른 쇠고기가격의 상대적 저렴, 아시아게임의 국제행사 등으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 수매의 지속과 생우를 수출하고 있으며 작년 6월이후 소 두수가 완만하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을철 이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소 약세를 우려하는데 조사료 확보와 부채 상환문제 등 미리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소값은 안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젖소마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육우 사육경영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